

WHO 자문회의 참가기

가톨릭의대 윤 임 중

진폐증은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직업병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예방이나 조기진단 그리고 치료방법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89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WHO 주관 하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자문회의도 진폐증의 예방, 조기진단 그리고 치료에 관한 모임이었다.

WHO에서 이와같은 모임을 갖게 된것은 1989년부터 WHO의 지원하에 한국, 일본, 중국이 진폐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한것이 동기가 되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날인 10월 31일에는 오전부터 한·중·일 3개국의 예비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때 마침 불란서항공사의 관제탑 직원들의 파업으로 일본과 중국대표들이 늦게 도착하여 회의는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본 예비회의에서는 각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교환과 본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금번 자문회의에는 나이지리아, 인도, 한국,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중국, 소련, 베트남, 영국, 미국, 칠레, 유고슬라비아, 태국 등 15개국에서 온 21명과 ILO에서 2명 WHO에서 3명등 모두 26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명, 중국에서 2명이 참석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명씩만이 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가톨릭의과대학의 조규상 교수 이승한교수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였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이번 회의에 WHO 나카지마 사무총장이 분진작업자들에 발생하는 진폐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번 회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의 인사말과 간소한 편이었으나 각테일 파티까지 마련한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며 이는 총장 자신이 진폐증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진 때문이라는 후문도 있었다.

3일동안 계속될 회의진행을 위한 좌장에는 조규상교수, 부좌장에 소련의 이즈메로프교수 그리고 간사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바릭교수와 영국의 맥 도날드교수가 맡았다. 선진국의 쟁쟁한 교수들을 거느리고 한국의 조규상교수가 진행시키는 회의인지라 실로 가슴 뿌듯함을 금할 수 없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WHO에 건의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것은 좌장의 훌륭한 능력 때문이었다는 참석자들의 후담을 들었을때는 다시 한번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첫날에 진폐증의 국제적 문제점에 대하여 조규상교수가, 그리고 진폐증 예방의 최근 영향

에 대하여는 유고슬라비아의 바릭교수가 발표하였고 대단히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일본의 다나카교수, 이와나미교수 그리고 필자가 진폐증의 조기진단을 소개하였고 오후에는 중국의 루교수가 진폐증의 치료를 소개하였다. 26 명의 참석자중 많은 사람이 환경위생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작업장의 분진억제 방법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 국가의 경제상태가 제각기 달라서인지 분진억제방법에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였다. 진폐증의 조기진단방법을 개발하는데도 같은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의견을 달리하는것은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원인이었다. 중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진폐증의 치료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는 현재적계는 50 만명 많게는 400 만명의 진폐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날에는 소개되고 토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WHO에 보내는 건의문이 작성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자문회의는 첫째, 효과적인 분진억제 둘째, 작업환경에의 분진농도의 체계적인 감시 셋째, 지속적인 의학적 감시제도 등을 통하여 진폐증을 관리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에 의견을 보았다. 모든 나라에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진행시키기 위하여는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입안자, 기업주, 근로자, 그리고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진폭로로 인한 호흡기계의 위험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분진, 특히 혼합분진에 의한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진폐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의학적 감시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WHO 지원하에 진폐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계속중에 있으나 다음과 같

은 사항이 범세계적 수준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1. 분진폭로의 효과적인 파악을 위하여 분진의 채집방법, 채집전략, 그리고 생리적감시를 검토하는 전문가 모임.

2. 앞으로는 일련의 역학적 연구의 계획과 감시문제를 검토하는 전문가 모임.

3.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선진국에는 진폐증의 제반문제를 관리 검토하는 전문가 모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검토하는 특별모임의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1) 탄광, 특히 석탄의 질과 특성에 따른 진폐증의 유해성을 파악하는 방법론.

2) 비산섬유분진의 정의와 결정등

지난 5월 국제석면협회 후원으로 런던에서 열렸던 석면폐증에 관한 워크샵과 이어 부러셀에서 개최된 국제석면회의의 그리고 이번 WHO 자문회의에 참석할 때 몇군데 공항 - 동경, 앙카레지, 파리, 런던, 부러셀, 그라나다, 제네바, 암스텔담, 김포공항-을 들렀는데 김포공항과 위의 모든 공항과 뚜렷이 다른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연구역이었다. 유럽의 위 공항들 내에서 금연구역은 한쪽 구석의 극히 제한된 장소에 한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웠는데 반하여 김포공항은 문에 들어서면 모든 곳이 금연구역이다. WHO의 건물내에도 담배 피울수 있는 곳이 마련되었는데 어찌자고 김포공항은 확일적으로 금연 딱지를 붙여 놓은것일까? 우리나라는 확실히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때문일까? 확일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네바에 묵는 동안 정성으로 보살펴 준 WHO의 이국장과 제네바주재 한국 대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